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여름호 2011. 8 No.13

건설역전 | 누렁이도 반려동물입니다

Animal Watch | 애견문화가 먼저인가 개식용문화가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

기획리포트 | 동물보호법, 2010년 1월 동물연쇄살해사건 이후

세상읽기 | 동물원,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났던 친구들

INTERVIEW | 동물 복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 대형마트 동물판매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며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13 |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기본



동물자유연대
Korean Society
For Animal Freedom



CONTENTS

1 여는 글

동물 구조도 사회의 책임입니다

2 견생역전

누렁이도 반려동물입니다

4 Animal Photography

많은 생명들에게 伏날이 아닌 福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6 Animal Watch

에겐문화가 먼저인가 개식용문화가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

8 기획리포트

동물보호법, 2010년 1월 동물연쇄살해사건 이후

10 세상읽기

동물원,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났던 친구들

12 INTERVIEW

동물 복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14 현장에서

대형마트 동물판매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여

16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_ 13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기본

18 활동소식

2011년 5월 ~ 2011년 7월

20 Animal & Culture _ BOOK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 /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22 입양해주세요

촉촉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울동이

23 포토행당뉴스

아기아옹이들의 매트릭스 놀이



동물 구조도 사회의 책임입니다.

올 여름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재산상의 큰 피해와 도로, 산 등이 유실되는 일이 있었는데, 동물자유연대의 회원님들은 모두 무탈하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편, 속초에서는 119구조대원이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며 추락하여 순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119에 동물구조 요청하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동물구조가 119의 업무는 아닙니다.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으니 출동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왜 시민들은 119에 동물구조 요청을 할까요? 또한 급변 사고의 원인이 단지 고양이 구조 요청에만 있는 것이었을까요? 김소방관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린 이러한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과 제도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조대원들이 노후한 구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한 로프에 몸을 맡긴 채 구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양이구조 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기에 구조 장비의 열악함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구조전담가가 아닌 119대원이 동물구조를 한 것 역시 정부의 열악한 동물구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동물구조를 하다보면 전문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이 119이기에 민원인들은 동물구조센터가 아닌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동물구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

분입니다. 법규상 동물구조 및 보호관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구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구조시스템도 전문화되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전문화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동물구조도 시민들이 해놓으면 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수거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동물 구조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그 위험성은 119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들이 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위험과 예산 지출을 무릅쓰고 동물구조를 꼭 해야 하는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논란이 여기까지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로변에 심어 놓은 예쁜 꽃들을 보며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안정도 줍니다. 굳이 예산을 써 가며 길에 꽃을 심어놓는 이유를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로써 동물을 제대로 보살필 의무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동물구조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아동·여성 학대가 가정 내의 일이 아닌 사회 모두의 관심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얼린 데 달친 경우라고, 관련법 개정으로 다음 달 9일부터는 119구조대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현장은 출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서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이 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조희경 | 상임 대표



견생역전

누렁이도 반려동물입니다

윤정임 | 반려동물케어인턴 팀장

누렁이는 유기견이었던 어미개 풍순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쓰레기장의 쓰레기 터미 안에 구멍을 파고 낳은 두 마리의 새끼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그만 녀석들이 잡히지 않겠다고 쓰레기를 파고 들어가 숨는 바람에 구조에 애를 먹기도 했었지요.

빛깔이 누런 개들을 흔히 누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누렁이들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친숙함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지만 품종 없는 품종으로 낙인이 찍혀 무시를 당하는 억울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입양을 진행할 때도 외국에서 들어 온 코카스파니엘이나 비글등과 덩치도 비슷하고 털이 빠지는 양도 비슷하지만 이들은 집안에서 키우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면서 누렁이들은 무조건 마당에서 키우는 개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변해가는 주거환경 속에서 누렁이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누렁이도 반려동물입니다**



김승영님 · 인터뷰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모란시장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강아지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처음으로 간 모란시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처참한 모습의 개들이 즐비하고 비릿한 냄새와 탈, 그리고 그 녀석들의 눈동자가 뒤엉켜 차마 더 이상은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기동물의 입양을 알아보면서 동물자유연대를 알게 되었지요. 입양자 선정이 되고 난 후 조그맣고 귀엽고, 털이 적게 빠지고, 말도 잘 듣고, 잘 쫓지 않고, 배변도 잘하는 강아지를 내심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양을 하게 된 누렁이는 고집이 아주 세더군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불려도 안 오고, 밥 줄 때만 주인이 되는, 산책 한번 나가려면 목줄과 씨름을 하고, 발바닥이 까질 정도로 버티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덕분에 누렁이를 안고 산책을 하는 이상스런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렇게 누렁이와 우리 가족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렁이와 시작한 동거는 5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며 반가움이 하늘이 찌르지요. 이런 누렁이를 보고 아내는 1시간 전부터 현관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산책 또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대며 어서 줄을 매라고 성화입니다. 간혹 심술이 나면, 집안 구석구석 통과 오줌 폭탄을 투하해 놓고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누렁이를 보며 이 녀석이 그냥 애원견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게 됩니다.



누렁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식용견이냐?’ ‘누렁이가 뭐냐? 예쁜 이름 많지 않냐?’.....

우리 누렁이는 흔히들 말하는 잡종, 똥개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품종이나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누렁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누렁이가 수명을 다하는 그 날 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렁이들을 아끼고 존중해주기를 바랍니다. ㄹ

많은 생명들에게 伏날이 아닌 福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매년 20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된다. 이러한 개고기 소비의 상당 부분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된다. 소비 패턴을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먹기보다는 가족모임, 회식 등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중 행사로 북날마다 보양식을 먹어온 풍습이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는지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도 변한다. 거 부갑없이 집에서 키우던 개라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써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굳이 먹는 것을 통해 해소하지 않더라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것은 비단 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특정 시즌에 집중된 수요에 따라 희생되는 동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북날이라는 명분으로 당연시해왔던 먹거리의 선택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



▲ 식용견을 기르는 돈장은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 지난 봄에 구조된 복남이. 망치로 맞은 오른쪽 눈은 상처가 아물고 난 지금도 제대로 떠지지 않습니다. 기해자는 고발당사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먹기 위해 복남이를 '잡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동물들의 눈에서도 고통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애견문화가 먼저인가 개식용문화가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

조희경 | 대표

지난 6월 24일에 모란시장에서 개고기축제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항의를 한 결과, 개고기축제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취소된 바 있다. 행사가 좌절되자 주최측 중의 한 편에선 원래부터 개는 식용이었는데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부 애견인들 때문에 개고기문화가 왜곡되고 있다는 해묵은 논쟁을 조장하려 했다. 현대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개는 원래가 식용으로 키워던 것일까? 아니라고 단언한다. 개가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때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원래 개는 식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개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된 시기는 대략 14,000년~10,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학자들 중에는 130,000년 전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석기시대로써 인간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렵과 채취를 하며 살던 시대이다.

한편, 개는 늑대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과 친밀성이 높은 종이 변화와 개량 과정 거쳐서 현재의 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본다.

개가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야생의 동물(늑대종)이 먹을 것을 쉽게 구하기 위해 인간의 주거지에 배회하는 일이 잦아지며, 처음엔 인간과 밀접한 생활을 했다가보다는 일정 간격을 두고 살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될 동물의 접근이나 적의 침입을 느끼고 짖어주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이 동물을 유용하게 느끼어 접근을 허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접근을 허용하면서 친근감이 생기거나 어린 강아지들은 인간이 데려다 키우기도 하며 개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착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인간 내면에는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감정적인 의지가 필요해서 '애완동물' (당시의 개념으로)을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한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듯 고고학적인 측면이나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으로나 인간이 개를 곁에 두도록 허락 한 것이 단지

식용을 목적으로 두었다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개는 민첩하고 공격적인 품성이 있어서 개를 먹기 위해 가축화 시켰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늑대(개)는 식용 가축으로 사육하기에 적절한 동물도 아니고, 인간은 도구와 문명의 발달과정에서 수렵에 만족치 못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공격적인 위협이 될 되는 초식성 동물과 사육이 용이한 소, 양, 염소, 돼지 등 동물을 중심으로 식용 가축화를 시켰다. 다만, 인간이 필요에 의해 동물을 다양하게 이용해 온 흐름으로 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개를 식용으로 희생시키는 것 역시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이 어떤 동물은 식용으로 이용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식용으로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10일에 방영한 MBC스페셜의 '고기 랩소디'는 인간이 가축을 식용으로만 인식해 온 습관적인 내면의 폭력성을 잘 설명해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16세기~19세기 동안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매매하는 일이 성행했었다. 노예로 팔려 가는 사람들은 배 밑에 짐작처럼 실려 항해 중에 6분의 1 이상이 사망했고, 면화·사탕수수 농장 등에 팔린 뒤 그 사회 문명의 폭력에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죽었다. 16세기 초 노예무역이 시작된 뒤 19세기말까지 최소한 흑인 노예 1,200만명이 신대륙으로 팔려나갔으며 항해 도중 등 중간에 목숨을 잃은 흑인들은 그보다 더 많아 노예매매의 희생자들은 줄잡아 2,000만~5,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들은 개인 별로 수가 세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단위로 기록되기도 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놓고 톤으로 거래할 때에 그들을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없는 그냥 '노예'였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혼을 못하거나 가정을 떠날 수 없는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폭력 가해자는 자기 아내·남편·아이·부모는 맛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맛아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렇게 폭력에 방치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삶이 폐쇄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모습마저 보여준다. 근대에 까지 이어온(아직도 다른 형태로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죄인에 대한 공개 처형, 공개 처벌, 공개 고문은 대중적 공포를 통한 저항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 피착취자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참고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식용으로 희생시키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 개들... 그러면서 인간에게 순응하게 만들거나 그 고유의 본성을 억압시켜 아무런 감성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동물을 식용의 개념에서 만 논하려는 사회. 그 안에 반생명적인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 사회 성찰이 더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노예가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 표현할 수 있고 부당함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우를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말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약자는 계속 폭력에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착취 당하고 있는 약자의 권리를 찾아 주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는 생명체의 희생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사회.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의 식문화는 이미 고영양, 과식의 사회이다. 비합법적이고 가치 충돌로 인해 말 많고 탈 많은 개식용만이라도 이제는 끝장 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게도 이기적인 것인가? ☹



동물보호법, 2010년 1월

동물연쇄살해사건 이후



전 경 옥 | 전략기획국장

2010년 1월 17일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된 동물연쇄살해사건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다. 2008년 한차례 개정된 이후 2년 만의 일. 주요 쟁점은 동물학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2008년의 개정 때 논의되었으나 미처 개정안문항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에 대한 논쟁도 재차 촉발되었다. 2010년 상반기 발의안을 낸 배은희, 조승수 의원을 필두로 정범구 의원 등 총 10개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2011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다. (총11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최고 1년 징역형을 상정하는 조항뿐 아니라 학대범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학대영상 온라인 사이트 게재 제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도록 2010년 가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2011년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된 황구 이야기는 잠시 주춤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6월20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고 6월23일 자구심사를 거쳐 6월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으로써 통과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처벌이 최고 징역1년 1천만원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제까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더라도 최고 500만원 벌금에 그쳤다.

(개 8마리를 연쇄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 징역형의 추가는 향후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다. (제12조) 동물등록제를 둘러싼 여러 잡음과 우려도 높았으나 동물등록제가 기본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논의되고 인정된 바 있다. 향후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나 등록제는 유기동물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피학대동물 보호 의무화 그리고 우려할 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구조와 보호 의무에서 더 나

아가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와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14조) 그러나 이 조항에서 우려할 점은 소유주가 보호기간내의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제 18조)이다. 학대받은 동물을 근본적으로 학대적 환경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해야 할 때 학대법인 소유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대주인에게 피학대견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향후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법규제정이 절실하다. 그러나 학대사건 발생 시 신고의 의무와(16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점 등은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동물실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의무화

동물실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의무가 법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험을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이는 윤리위원회 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동물보호법 25조 3항에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도록 벌칙조항이 생겼다. 이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동물판매업 등록의무화 범위 확대

동물판매업 등록의무화 조항이 기존의 개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동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 제32조 1항)에게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마트동물판매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소동물의 등록여부와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법에서 영업

의 세부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얼마나 세부규정을 동물복지적 관점에 따라 만들 수 있는지가 현재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6. 동물복지인증제의 도입

농장동물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동물로 법적 규정된 경우는 동물보호법 내에서 [적용의 제한]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학대와 이에 따른 처벌이란 규정으로 정의내리기 매우 힘들다. 이에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장동물의 복지적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동물보호법에서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개정동물보호법 5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보호에 관한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서 동물복지 담당관이 2명밖에 되지 않고 그 인력조차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동물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 동물복지정책도입과 실행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1년의 법개정은 그간 여러 동물보호활동가들과 동물이 생명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자각한 시민들 활동의 산물이다. 이제 이 법이 실질적으로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현재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다. ☺

동물원,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났던 친구들

황윤 | 영화감독

어느 화창한 봄날, 동물원에 놀러간 나는 우연히 북극곰이 계속해서 머리를 흔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았다. 시계추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머리를 흔드는 북극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관람객들은 곰이 춤춘다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간헐 동물들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순간이 마차 한 편이 부조리극처럼 느껴지면서 동물원이 낯설게 보였다. 꿈과 낭만의 동산으로 포장된 동물원. 나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동물원이 다루지는 관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너무나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와는 정 반대의 위치, 그러니까 관객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간헐 동물들의 입장에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됐다. 이것이 야생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영화 <작별>의 시작이었다. 철창 안에 갇힌 호랑이, 재규어, 고릴라, 침팬지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눈으로 본 모습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동자와 표정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철문을 쿵쿵 두드리고, 유리벽을 긁고, 비좁은 전시장을 끌고 없이 뱅돌고, 목이 쉬도록 울며,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외롭다고, 동료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작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고달프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를 알려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의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게 결정적인 인연이 된 것은 야생동물소모임(야소모 <http://yasomo.net>)이었다.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야소모는 산으로, 들로, 강으로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찾아 탐사를 다닌다. 발자국, 똥, 깃털, 발톱으로 굵은 나무 동굴, 이빨로 베어먹은 풀잎, 낙엽을 모아 잠을 잤던 자리 등 숲과 강가는 야생동물들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아름다운 풍

경과 나들이 공간으로만 생각했던 산과 강은 사실 수많은 생명들이 몸을 부리고 사는 살터였던 것이다. 야소모 덕분에 나는 우리 한반도에 산양, 담비, 수달, 하늘다람쥐, 삥(살쾨이), 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같은 아름다운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됐다. 밥소사,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걸 여태 몰랐더니.

그런데 이들이 다 멸종의 벼랑 끝에 서 있다니. 나는 이들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안 것이 미안했고, 늦게나마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했다.

동물원에서 시작된 야생에 대한 관심은 점차 동물원 밖 서식지와 개발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 야소모의 오랜 친구 최태영씨가 로드킬(roadkill, 야생동물 교통사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88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던 어미 수달. 그녀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인간이라는 동물 이 점령해 버린 이 땅에서 항저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 가엾은 생명들은 어느 따스한 오후, 손잡고 노래 부르며 친구네 집에 놀러 가던 길에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되었던 미선이 효순이와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이 차창 밖으로 버린 음료수 깡통과 함께 갯길에서 나뒹구는 오목눈이, 족제비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졌고, <작별> 이후 <침묵의 숲> 제작을 마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로 카메라를 매고 구례로 내려갔다. <어느 날 그 길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최태영씨는 지리산 자락의 주민 최천권, 최동기씨와 함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0개월 동안 지리산 주변 120km의 도로-섬진강변 도로, 88고속도로, 4차선 산업도로-를 조사했다. 족제비, 너구리, 삿, 호랑지빠귀, 소쩍새, 수달, 남생이 등 이 일대에서 발견된 로드킬 수는 무려 5800여건. 그렇다면 10만km가 넘는 전국의 도로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고 있는 것일까?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영을 하면서, 그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길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에 얼마 안 남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씨가 마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일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세 분의 조사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에 불과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드킬”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복수를 건 조사 덕분에, 이제는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드킬이라는 현상을 알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조사 결과는 최태영씨의 박사학위 논문 “포유류의 도로 횡단 특성과 행동권 분석을 통한 로드킬 저감 방안”으로 완성되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태영씨의 조사와 조언에 귀 기울여 고속도로 가장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 도로 밑에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보완하는 등 로드킬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이다. 로드킬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이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다. 남한 도로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와 지방도 역시,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계속해서 확장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남한의 도로 길이는 10만km에 이른다. 국토 1km² 당 도로 길이가 1km로서, 거의 세계 최고의 도로 밀도이다. 전국을 다녀보면 연중 한적한 도로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로를 신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해서 만드는 도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도로건설의 많은 경우는 불필요한 건설이다. 교통량 예측을 부풀려 불필요한 도로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다. “중복”, “과잉” 도로 건설에만 현재 10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의해 밝혀졌다. 예컨대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 놓고 바로 옆에 거의 같은 노선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식이다. <어느 날 그 길에서>를 극장과 학교 등 많은 곳에서 상영하면서 관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대안이 무엇인가?’이다.

로드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생태통로는 결코 그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사고는 도로의 모든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어느 한 지점에 생태통로를 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존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생태통로나 유도 울타리 같은 저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저감시설이 더 많은 도로 건설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도로들이 생태통로 몇 개를 놓은 뒤 ‘친환경 도로’라는 이름을 내걸며 산과 들을 파헤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감시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급한 대안은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을 막는 일이다.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국민 현금을 쏟아 부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도로를 중복 건설하지 말라고 정부와 관련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독일의 예처럼, 이미 만들어진 도로라 할지라도 과잉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아스팔트를 걷어 없애고 땅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과 더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의 변화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비와 속도 중심적인 삶에서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일이 아닐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우리의 동반자로, 이웃으로, 친구로, 이 땅의 오래된 주인이나 당당한 주인으로 볼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땅”이라는 글자를 보고 부동산 투기나 개발을 떠올리기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이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할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

<어느 날 그 길에서> <작별> 공동체상영 신청 및 관람 문의
— 홈페이지 blog.naver.com/oneday2008

“ 동물 복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이 정 예 | 리포터

“동물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도움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일부 동물학대법은 지난 6월 29일 통과했습니다. 법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7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을 만났다. 배은희 의원은 국회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중 일부가 통과된 점에 대해 다소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를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수의 사람이 보는 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 중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영상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등의 문제를 끌어 모을 수 있었죠. 여기에 동물의 생명 경시가 자칫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배은희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국회 발의가 가능했던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동물단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은희 의원의 블로그(<http://blog.naver.com/behappytalk>)에 들어가 보면 얼마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지 잘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발의되는 과정부터 성립되기까지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배은희 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각종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이다. 7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배은희 의원은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보좌진 및 동물협회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실험동물의 복지 및 안정성 확보, 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실험동물은 각종 화장품이나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된다. 실험용으로 쓰이기 위해 사육되고 죽음을 맞는 이 동물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3Rs(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3Rs란 먼저 실험동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핀다(Replacement),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개체수를 최소화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다(Reduction), 실험동물을 실험에 투입할 경우 고통을 최대한 받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다(Refinement)는 내용이다.

"간디는 동물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자칫 소외될 수 있었던 동물보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배은희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발의하고 일부 통과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직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 복지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발의를 준비하면서 통과되기까지 국회 및 관련 기관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지만 차츰 그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어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맨 처음 우리 아이들의 요청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차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제 자신도 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발전된 동물보호법 발의 및 개정에 힘을 계획합니다." ☺



■ 배은희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에 꾸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behappytalk> (배은희 의원 블로그)

대형마트 동물판매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며

박연주 | 캠페인팀장

‘햄스터가 온 몸이 들어뜰긴 채 죽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토끼장 안에 물그릇이 빈 채로 방치돼 있어요’ ‘피부병이 있는 고슴도치를 그대로 팔고 있어요’ ...

대형마트 동물 판매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의 제보는 지난 2~3년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500만을 넘는 시대, 키우는 동물의 수와 함께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급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대형마트이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들어서 있는 대형마트는 일 평균 10,000~15,000명에 달하는 방문자들이 찾는 장소이다. 대부분의 대형 마트에는 어김없이 동물 판매 매장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대형마트 주요 3사들을 살펴보면, 전국에 걸쳐 분포한 전체 매장 중 80% 이상의 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동물들은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들이다. 이 동물들은 크기가 작고 소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형 마트 매장에 전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일정 크기의 케이지나 상자에 넣어 키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에 비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로 생각하기 쉽다. 처음으로 집에서 동물 키우기를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반려동물 초보자 입문용’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희귀 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억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이름을 단 거북이나 파충류, 펫릿, 프레리도그 등 높은 가격대의 외래종 동물들도 하나 둘씩 대형 마트 판매대 위에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삭막하게 쌓여있는 물건들 틈에서 살아 움직





▲ 바닥면적은 약 30×40cm 가량의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토끼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동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손쉽게 이끌어낸다. 실제 구매 의사여부를 떠나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발길을 멈추고 한참 동물들을 구경하다 지나가곤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아닌 신기한 동물을 보여주는 일종의 '체험'으로 아이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러한 동물 판매 코너를 '체험학습매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형 마트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된 공간에서의 동물 판매는 의도하지 않은 충동구매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 동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구매자들에게 동물을 제대로 돌보는 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매된 많은 동물들이 관리 부실로 오래 살지 못하거나, 방치상태에 놓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통행과 소음, 거의 하루 24시간 매장 안을 비추는 밝은 빛 등 대형마트의 환경 조건이 동물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또한 매우 크며, 작은 동물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의 기호에 맞춰 어미 젖도 떼지 못한 상태의 어린 동물들이 판매대 위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량 생산되는 일회성 소모품이 빼곡이 쌓인 매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동물도 주변을 둘러싼 소모품과 동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형 마트에서의 동물판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

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는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장의 규모나 이 매장들을 통해 판매되는 동물의 수는 일반 동물판매업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동물 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이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2010년부터 대형마트 내 동물판매 현황에 대한 조사와 대형 마트 동물 판매 반대 1인 시위를 지난 5-6월 사이 진행했다. 1인 시위가 알려지면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대형 마트 동물 판매의 문제점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 판매업 관리 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형 마트의 동물 판매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전시 우리 한 칸 당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와 판매 가능 연령을 제한, 부상이나 질병 확인 시 격리 시설 마련과 지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 연계 체계 확보, 마트 내 판매 가능한 동물의 종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의 개선이 없는 대형 마트에서의 동물 판매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제대로 된 판매관리 기준 마련을 목표로 동물자유연대의 대형 마트 동물 판매 반대 캠페인도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㉔



▲ 마트에서 판매 중인 포유류 동물은 어미 젖도 떼지 못한 어린 새끼들이 대부분이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기본

-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은 필수입니다



윤정원 | 반려동물문화캠페인

▲ 캣선

키우던 동물을 인터넷을 통해 분양 보낸 뒤 연락이 끊겨 추적을 해보니 전문적으로 동물을 교배 시켜 새끼강아지를 판매하는 업자인 것 같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전화도 많이 걸려옵니다.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이 품종이 있는 소형견들이며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들의 운명이 평생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리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2마리의 개가 방 한칸에 방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개들은 암수를 구분하여 케이지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건물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3년 전쯤 이사 온 개들의 주인은 처음에는 2마리의 개를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생김새의 개들... 분명 이 개들은 자체적으로 번식을 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 캡션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오게 되는 동물들의 대부분이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로 유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본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정으로 인해 스스로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나온 동물들은 길에서 떠도는 다른 동물들과 교배가 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출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의 경우 5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은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념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개가 공원에 오면 다른 개와 놀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 스스로가 중성화수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수술이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중성화수술은 주인의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며,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생각하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은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컷들의 경우 본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고환질환 등 생식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 방법입니다. 암컷들은 자궁축농증, 자궁내막염, 유방암, 난소종양 등 생식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정기 출혈이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도 방지합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성화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하고픈 주인의 애절한 마음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새끼들을 어미와 함께 끝까지 키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친척이나 친구에게 보내거나, 또는 인터넷이나 애견상을 통해 분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반 이상이 또 다른 집으로 보내지거나 유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나로 인해 또 다른 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양산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자연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동물들의 임신과 출산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사람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에 책임져 주십시오. 중성화수술은 책임감있는 반려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중성화수술이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태어나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활동소식

» 입양동물의 날 행사



버려지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입양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입양동물의 날 행사가 5월 1일 미사리 멍멍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봄 열리는 이 행사는 시작된 지도 어언 10년을 넘어서 동물자유연대의 전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단체를 통해 동물을 입양하신 가족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의 1일 부모로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참여로 전날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 엽서 국회 전달



2010년 말부터 진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엽서쓰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25장의 서명 엽서가 수집되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지난 5월 18일 이 엽서 데이터와 동물보호법 개정 제안서를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입법자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강 세빛둥둥섬 모피쇼 반대 집회 진행



한강 세빛둥둥섬의 해외 명품 브랜드 모피 패션쇼에 강력 항의하는 집회가 지난 6월 2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한강 모피쇼 반대 집회는 한강의 르네상스를 대변한다는 구조물의 개막 행사로 모피 제품이 주를 이루는 해외 브랜드 패션쇼를 선정한 서울시의 무신경한 행정에 항의하며, 본질적으로 잔인한 모피 산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기존 세빛 둥둥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결합되어 언론에도 비중 있는 이슈로 다루어졌고, 국내 일부 연예인들은 패션쇼 참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 양평 입양 사기 혐의 번식업자, 불법 동물판매업자로 기소 처벌



올해 초 조사를 진행한 양평 반려동물 입양 사기 사건의 고발 결과, 가해자 P씨가 악식 기소 100만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처벌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판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당초 피해자들은 P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혐의 입증에 어려워 현 상태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큼니다. 인터넷을 통한 동물 입양과 분양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동물을 인수받은 사람과는 쉽게 연락이 끊기고, 식용 또는 애완견 번식업자들이 끼어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키우던 동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일은 최대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TV 동물농장 방송 학대 피해 황구 구조

6월 12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황구 학대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황구는 발견 당시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당한 황구 찢자는 한 쪽 눈을 잃고 한 쪽 눈 부위에서 턱 아래까지 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방송 제작팀과 함께 학대 가해 법인 추적과 구조된 황구 입양을 진행해왔습니다. 학대범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황구는 어느 정도 상태를 회복한 후, 새로 만난 가족의 품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양 간 황구 이야기는 7월 3일 동물 농장을 통해 방송되었고,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를 위한 시민 문화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반대하는 시민문화제가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동물진료비 과세 계획은 번번이 대다수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입니다. 동물 진료의 대부분은 진료 대상인 동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때 발생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법적 제도 보원은 뒷전이고,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기획재정부의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에 우리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시작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법 개발을 촉진하고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처우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 활동, 동물실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동물 실험 캠페인이 화장품 개발 및 판매 기업, 소비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방대한 시장규모, 이미 다양한 제조 성분들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여러 대체 실험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가 진행할 화장품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 촉구

7월 14일 멸종 위기에 있는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서울대공원과 제주퍼시픽랜드에 유통시킨 업자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되어 서울과 제주의 놀이공원으로 판매된 30마리의 돌고래 중 절반이상은 폐사한 상태입니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 제협약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종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포획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대공원에서 이러한 불법포획과 유통에 연관된 사실은 묵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포획제한 중 동물의 불법 유통과 잔인한 동물소에 많은 분들이 엄중히 항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임신과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고민해보셨을 만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물책 전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에서 최근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 조명한 책을 연이어 출간했습니다.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

저자 | 권지형, 김보경



임신과 출산으로 키우던 동물을 못 키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은 지금도 동물자유연대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신과 육아 앞에서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일이 당연시되는 것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사회현상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권지형 박사와 책공장 더불어의 김보경 대표가 함께 집필한 이 책은 의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임신과 반려동물 키우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통념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고, 언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기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학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 영유아 육아 과정에 있는 반려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

저자 | 앤 N. 마틴, 번역 | 이지



이 책은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들에게 전용 사료가 가장 좋은 먹거리라는 반려인들의 막연한 믿음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대 사료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료 제조 공정 뒤에 숨은 진실을 폭로하는 이 책은 1997년 출간 당시에는 주류 미디어의 외면을 받았으나, 10년 후 사상 최대의 사료 리콜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서야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반려인들도 수입사료를 구입해 동물들에게 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남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소비자들도 이제 깨어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동물 사료업계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직접 만들어 먹이는 자연식 레시피와 질 좋은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하여 양육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입양해 주세요

촉촉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 이름 : 울동이
• 성별 : 수컷
• 나이 : 2세강
• 몸무게 : 6kg가량
• 입양 문의 : 박은혜 간사
(02-2292-6337)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 떨어뜨릴 것 같은 눈망울과 하얀색 고운 털을 가진 울동이. 울동이의 눈망울을 직접 보신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울동이의 사연은 2009년 6월 <TV 동물농장> '도로 위에서 사는 개' 편에서 방송되었습니다. 3마리가 도로에 버려졌으며 그 중 어미 개는 차사고로 죽은 상태였고, 울동이와 다른 한 마리 누렁이가 어미 개의 사체를 지키며 도로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차가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울동이와 형제인 누렁이가 같이 구조되었으나 누렁이는 모낭충이 심해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울동이는 모낭충 치료를 잘 견뎌내어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극성스러운 아이들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울동이가 모낭충이 재발하기도 했습니다.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입 주위와 눈 주위에 털이 빠지면서 모낭충이 재발합니다. 울동이가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기에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양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울동이는 말썽도 안 피우고 다른 개들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영역표시를 하기에 걱정했는데 잠시 임시보호를 해 보니 배변도 잘 가렸고요, 보는 사람마다 순하고 똑똑한데 애교까지 많이라며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울동이가 이제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울동아, 좁은 사무실 안에서 극성스러운 다른 개들이 짓고 싸우는 걸 피해 다니느라 매일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는 조용한 침대 위에서 널 겨냥고 입 맞춰 줄 주인님을 찾아 가렴. 사랑해! 🐾



▲ 울동이의 사연은 2009년 6월 <TV 동물농장> '도로 위에서 사는 개' 편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아기야웅이들의 매트릭스 놀이



어미고양이를 잃고 생사의 고비에서 조조되어 들어 온 순수와 순백이, 그리고 동글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들어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여러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밝음과 천진함이 있죠. 사람들을 피해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길냥이들이 세상의 위협 없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발휘하여 살 수 있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키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계좌 _ 국민은행 806201-04-005468 / 농협 015-17-002592

정기후원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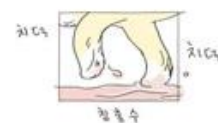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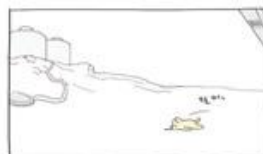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크면 갖다 바릴거면서
장난감 맞지



7 8 7



STUDIO
2morrow.com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삼**

계간지 / 2011, 여름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1년 8월 5일 편집·진행 박연주 교정·교열 이정애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www.animals.or.kr 디자인·제작 동방기획(02-2277-0365)